

은행권, 경영진 인사 임박...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촉각’

5대 시중은행장 연내 임기 만료
연임 통한 경영 연속성 확보 전망
실적추이·내부통제 등 변수 산적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잇따라 만료되는 가운데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금융권에서는 연임을 통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 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른 데다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올해 말 종료된다.

관건은 ‘안정’과 ‘변화’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다. 지난 2024년 말 인사에서 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이 새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행장을 선임하며 한 차례 세대교체를 마친 만큼, 올해는 대규모 물갈이보다 연임을 통한 경영 연속성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취임 첫해인 2023년 3조6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조6959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순이익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3조775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안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는 정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취임 당시 은행장 임기 관례로 여겨졌던 ‘2년+1년’ 체계를 넘어 ‘2년+2년’ 임기를 부여받아 총 4년간 재임한 만큼, 장기 재임에 대한 부담과 세대교체 요구가 변수로 거론된다.

첫 임기를 마치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조86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다. 하나은행도 3조7475억원으로 전년(3조3564억원) 대비 11.7% 성장하며 외환

과 기업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평가가 엇갈린다. 정 행장은 취임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 안정화, 영업 경쟁력 제고에 공을 들였지만 실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6070억원으로 전년(3조390억원)과 비교해 14.2% 감소했다. NH농협은행보다 뒤처지며 5대은행 가운데 끝으로 밀리는 ‘어닝쇼크’를 나타냈다.

농협은행 역시 전통적으로 행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범농협 차원의 쇄신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변수로 꼽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 하반기 지주 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관련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모범규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안을 모두 망라할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당국의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임을 통한 경영 연속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연말까지 실적과 내부통제 이슈,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만큼 최종 인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상자산업계, 토큰증권 등 ‘새 먹거리’ 준비

거래소, 가상자산 제도화 이후 대비
수익 다변화 관련... 은행·증권사 협업

가상자산업계가 미래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새 먹거리’도 준비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의 입법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제도화 이후의 ‘지각변동’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 금융권 ‘합종연횡’ 활발

14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파스)들은 은행 및 증권사와의 협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5월 대규모 지분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4대 주주로 부상했고, 같은 달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의 주요 주주로 입성했다. 이달 초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코빗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최근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금융권의 차세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은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통해 화폐나 증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송금 비용이 낮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업과 금융업 간의 장벽으로 가능했던 ‘금각분리 원칙’도 폐지 수준에 있다.

은행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환전 및 송금, 결제 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대비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송금 시 발생하는 비용도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은행권의 ‘슈퍼앱’ 경쟁도 본격화한 만큼, 앱 내에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장착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증권사에선 가상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나 토큰증권 등 파생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빙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가상자산ETF의 발행이 안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는데, 거래소에서는 직접 취급이 불가한 만큼 증권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여겨진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임박한 것 또한 증권업계가 거래소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코인원(8월), 빙썸(9월), 업비트(10월)까지 주요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계약도 종료된다. 국내에서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계좌를 연결하도록 정하는데, 거래소별로 1개 은행과의 제휴만 가능하다. 실명계좌 유치를 통해 대규모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원화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는 금융권의 큰 관심사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빙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빙썸과 코인원은 기존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업비트는 최근 하나은행이 4대주주로 부당한 만큼 향후 실명계좌 은행이 변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물결

미국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중복 규

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여겨진다.

클래리티법의 통합 법안이 공개되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의 입법 지연이 국내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고, 탈중앙화거래소(DeFi)의 활성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매출을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지속할 수 없어져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더 큰 과제는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익구조 다변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한 만큼, 관련 규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카드사, 홈플러스 할인·제휴 등 혜택 축소

파산 사태 대비... 고객 불편 최소화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할인권 사용처에서 홈플러스를 제외하며 실질적인 가맹점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나선 것. 일부는 홈플러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하며 홈플러스 파산 후폭풍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하나카드는 소꿉케어 멤버십 할인 혜택 서비스 목록에서 홈플러스를 제외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맹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5000원 대형마트 할인권을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내달 13일부터는 온라인몰 할인 멤버십 서비스도 제한된다. 홈플러스 온라인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5000원 할인 멤버십을 삭제하고, 올리브영, CGV, 투썸플레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도 홈플러스 소꿉케어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한한다. 홈플러스 온라인 5000원 할인권 제공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폐지한다. 대신 11번가 5000원 할인권을 지급한다.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

오프라인 할인권 이용을 중단했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나선 곳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로 홈플러스 제휴카드인 ‘홈플러스KB국민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임직원 전용 카드, 가족 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플러스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 삼성카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제휴카드 발급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홈플러스스페셜 신한카드’를,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삼성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들은 본격적으로 홈플러스 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다른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처를 마련해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파산과 관련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불편이 커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그에 따른 행보로 보편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착수

예정보다 보상시기 4개월 앞당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4개월 앞당겼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 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토지, 지장물, 영업

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